

# 2030대를 위한 공적연금 꿀팁



오상열

행복한 금융잡짓기

2030대 직장인의 경우에는 3층 보장의 관점에서 은퇴관련 금융상품을 본다면 먼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챙긴다. 둘째는 퇴직연금을 챙긴다. 퇴직연금은 회사별로 DB형, DC형, IRP형 등이 있는데 2030대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개인형 IRP를 추가로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최대한 700만원까지 받아서 환급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효율적인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을 가

입할 때는 비과세연금보다는 세액공제연금지출을 가입하여 세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작은 사람을 중심으로 연금지출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세액공제율이 높다. 즉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이하일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일단 가입하면 공적연금과 같이 강제저축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해약으로 인해서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계좌에는 보험, 펀드, 신탁 등이 있는데 고객의 투자성향

이나 위험보유성향에 따라서 추천하면 될 것이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지출을 중도에 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해지보다는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거나 유동성 자금이 필요할 때는 연금지출을 통한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중도인출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지출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지출 해지신청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롯데홈쇼핑, 서울시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맞선

롯데홈쇼핑은 지난 9일 서울 시청 본관에서 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시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비롯해 롯데홈쇼핑 이일용 방송본부장,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홈쇼핑



애경산업 노사, 임단협 16년 연속 무교섭 타결

애경산업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16년 연속 무교섭으로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애경산업 노조는 2018년도 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측에 위임함에 따라 지난 9일 오후 4시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애경산업 본사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애경산업 노사 16년 연속 무교섭 타결 협약식'을 가졌다. 애경산업과 애경산업노동조합은 이로서 지난 2003년부터 16년 연속 무교섭 타결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며 회사와 노동조합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더욱 확고히 했다. /애경산업

#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 본격 시작할 때



기지수첩

김승호 (산업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시한이 이번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큼은 최저임금을 평균 수준보다 낮게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올해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해당사자간 줄다리기가 한 해 지나고 시간이 막바지로 치달아 남은 시간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에 도 촉박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도입한 지 꼭 30년이 된 우리나

라 최저임금은 그동안 단일 임금체계를 유지해왔다.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없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임금을 이듬해 일괄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 10일엔 정부 세종청사로 달려갔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은 노동 생산성이 낮고 지불 능력이 한계가 있어 평균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지난해 당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 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

에 대해서 차등화 방안을 강구하자고 뜻을 모았었다. 하지만 이는 공염불로 끝났다.

올해 다시 사용자측이 업종별 차등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여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이 다른 마당에 유독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사용자측 주장이다.

올해는 이미 물건너가는 분위기이지만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같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발전적인 최저임금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다. /bada@



현대백화점그룹,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2.5억 전달

현대백화점그룹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게 지원금 2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박동운 현대백화점 사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에서 조종묵 소방청장과 '순직 소방관 가족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올해까지 총 396명에게 11억원의 학비를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지원 규모(1억원)를 대폭 늘려 유가족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심리치료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

## 인사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원영진 △서대문은평지사장 최태일 △강북성북지사장 최상철 △광진성동지사장 장준호 △마포용산지사장 박기환 △노원도봉지사장 이종영 ◇남서울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이청학 △강서양천지사장 송현진 △관악동작지사장 안광석 △강동송파지사장 신창훈 △서초지사장 권태준 ◇인천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허연 △부천지사장 노일래 △김포지사장 고영래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지사장 신용석 △파주지사장 김충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반석걸 △안양지사장 유현호 △안산시지사장 백선호 △성남지사장 권태호 △오산시지사장 송중구 △평택지사장 윤상천 ◇강원지역본부 △강릉특별지사장 한명관 △원주지사장 조용욱 ◇충북지역본부 △동충주지사장 이경섭 △대천세종충남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문창배 △대덕유성지사장 고현욱 △천안지사장 김병선 △서대전지사장 허태오 ◇전북지역본부 △익산지사장 이건구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김대식 △여수지사장 진장호 ◇대구지역본부 △동대구지사장 광병철 △경주지사장 이민하 △남대구지사장 박정석 △서대구지사장

시장 윤창희 ◇경북지역본부 △구미지사장 서상일 ◇부산울산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박종명 △울산지사장 김완호 △김해지사장 김준식 △동래지사장 정용수 ◇경남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전중구 △진주시지사장 하희봉

## 부음

▲ 박종삼 씨 별세, 박전홍(사업)·박소현(선교사)·박주현(국회의원)·박은정·박신홍(중앙일보 기자) 씨 부친상, 이요준(목사)·홍기태(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씨 장인상, 김희진(명지대학교 수) 씨 시부상 = 1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7시

▲ 최현규 씨 별세, 최중훈(사업) 씨 부친상, 김정림(의사)·이하경(중앙일보 주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김정상(사업)·김동휘(사업)·제대건(미국 변호사) 씨 장인상 = 10일,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2일

▲ 강정례 별세, 강용수(시흥경찰서 경제범죄팀장) 씨 장모상 = 10일 오전 1시, 전북 익산시 우석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12일 오전 7시

▲ 민경진 씨 별세, 이해영(국토부 기자실장) 씨 모친상 = 9일 오후 11시, 세종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2일

▲ 김효순 씨 별세, 이재욱(이투뉴스 대표이사-전 연합뉴스 기사심의실장)-재길(금호에프디 상무)-영애-정순-재희-재란-재심 씨 모친상, 김민호(금호에프디 회장)-이정현(전기안전공사 근무)-이득춘(선장) 씨 장모상, 이경호(변호사) 씨 조모상, 김영석(금호에프디 사장) 씨 외조모상 = 9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 김선규(전 여수시장) 씨 별세, 김경천(전대신증권 상무) 씨 태현(부영선진자동차공업사 대표) 씨 부친상, 김봉준(김봉준정신과의원 원장) 씨 장인상, 10일 오전 6시 30분, 전남 여수장례식, 발인 12일 오전 9시

## 한국후지제록스 오타니 다카시 신임대표 취임



한국후지제록스는 주주총회에서 2018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오타니 다카시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오타니 다카시 대표이사 사장은 일본 고베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후 1988년 후지사진필름주식회사(현 후지필름주식회사)에 입사했다. 후지필름 아시아가라 공장 인사·노무 업무를 시작으로 인쇄 시스템 부 판매그룹, 해외마케팅그룹 등을 거쳤다. 또한 후지필름 북아메리카 그래픽시스템부 기업경영 기획이사를 역임하며 프린팅 업계 전문가로서 해외 마케팅 경험을 섭렵했다.

이후 후지필름 인사부 글로벌 인사그룹에서 글로벌 인재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였다. 2014년에는 후지필름중국투자유한공사의 의료 제품 사업본부 본부장을 역임했고, 2016년부터 후지필름 그래픽시스템사업부 기획그룹·신규 패키지사업그룹 총괄 매니저를 역임하며 국제적인 감각도 쌓아왔다. /구서문 기자 yuni2514@



롯데하이마트 '월드컵 꿈나무'에 2천만원 후원

롯데하이마트가 축구 꿈나무에게 축구구입비용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후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등학교 축구영재 200명에게 전달된다. 1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롯데하이마트의 후원금 기증식은 롯데하이마트 황영근 가진부문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충로 서울남부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하이마트

## 에어서울 '사이다 특가' 日 최저 5000원부터

(편도 기준)

에어서울이 10일 오후 2시부터 동경, 오사카, 다낭, 광 등 국제선 항공권을 속시원한 초특가에 판매하는 '사이다 특가'를 실시한다.

'사이다 특가'는 에어서울이 일년에 단 두 번 실시하는 가장 큰 정기 특가 이벤트로 항공운임은 편도 기준 일본이 최저 5000원부터, 동남아가 최저 1만9900원부터다.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편도 총액은 ▲동경, 오사카 4만

9900원~ ▲다카마쓰, 요나고, 시즈오카, 구마모토, 우베 4만5900원~ ▲홍콩 6만7300원~ ▲다낭 8만500원~ ▲코타키나발루, 씨엠펜 8만2700원~ ▲광 10만9900원이다.

특히 이번 특가는 첫 날 특가항공권 구매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두 번, 세 번 도전할 수 있도록 둘째 날, 셋째 날도 각각 추가로 특가 좌석을 오픈한다.

/양성문 기자 ysw@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9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89호